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핵심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29

PROLOGUE

들어가는 글

예수에 대한 지식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봉사, 선한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교재는 두 가지 질문을 따라갑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둘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두 질문은 교리를 정리하기 위한 질문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교재가 붙들고 있는 한 문장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며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신학적 경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부름받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 갈라디아서 2:20

성경 본문은 모임에서 직접 펼쳐 읽는 것을 권합니다. 교재 안에서는 핵심 구절을 짧게 인용하고, 전체 문맥은 성경에서 함께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HOW TO USE

교재 사용법

한 번에 읽기보다, 함께 읽고 말하고 살아내기

추천 진행 방식

- | | |
|--------|----------------------------------|
| 본문 읽기 | 10~15분 · 중심 본문을 소리 내어 함께 읽습니다. |
| 내용 이해 | 15~20분 · 본문의 역사적·신학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
| 대화과 질문 | 25~35분 · 정답보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도록 돕습니다. |
| 삶의 적용 | 10~15분 · 이번 주에 순종할 한 가지를 구체화합니다. |
| 기도 | 10분 · 서로의 고백과 결단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

목차

PART 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 | | |
|-------------|--------------|
| 1 예수와 그리스도 | 2 말씀이 육신이 되다 |
| 3 하나님 나라의 왕 | 4 십자가와 부활 |

PART 2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 | | |
|------------------------|---------------|
|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 6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
| 7 예수를 따르는 제자 | 8 그리스도의 몸 |
| 9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 |

부록 6주 소그룹 가이드 · 핵심 본문 · 추천도서 · 개인 묵상

PART 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2천 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마가복음 8:29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Christos 이며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합니다. 뜻은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등이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궁극적인 구원자와 왕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순간,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이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니다.

함께 읽을 본문 마가복음 8:27-30 · 마태복음 16:13-17 · 요한복음 1:40-41 · 사도행전 2:36

청년들과 꼭 구분할 것

- 예수**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사셨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부음 받은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 주**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의 권위와 주권을 고백할 때 사용한 핵심 호칭입니다.

한 문장 정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질문

- 1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로 어떤 분으로 생각해 왔는가?
- 2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존경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 3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내 시간, 돈, 관계, 성공의 기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 › **하나님을 보여 주심** —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봅니다.
- › **우리과 함께하심** — 예수님은 인간의 피곤함, 슬픔, 유혹과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 › **우리를 구원하심** —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함께 읽을 본문 요한복음 1:1-18 · 요한복음 14:8-11 · 빌립보서 2:5-11 · 골로새서 1:15-20 · 히브리서 2:14-18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요한복음 1:14

초대교회의 고백을 아주 짧게

교회는 오랜 논쟁을 거치며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받은 하나님, 받은 인간으로 나누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함께 나눌 질문

- 1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이미지”는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 2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사실은 내 기도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가?
- 3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 오해 중 무엇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께서 가져오신 것은 단지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첫 선포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은 뒤 가는 장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권력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고, 힘을 움켜쥐며, 타인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려 합니다. 예수님은 내려가고,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 마가복음 1:14-15 · 마가복음 10:42-45 · 누가복음 4:16-21 · 요한복음 18:33-37

왕의 역설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어서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성공, 인정, 영향력, 권력의 기준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보다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가?”를 묻습니다.

함께 나눌 질문

- 1 내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의 성공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 2 직장·학교·교회에서 내가 힘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 3 이번 주 내가 “낮아짐과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

예수께서 누구신지는 그분이 하신 일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약이 복음을 요약할 때 반복해서 붙드는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가 다루어지고, 부활에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새 창조의 시작이 선포됩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

- › **대속**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결과를 담당하셨습니다.
- › **화목** —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됩니다.
- › **승리** —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패배합니다.
- › **새로운 길** — 십자가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사랑과 자기희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말하는 것

부활은 “예수의 가르침이 계속 살아 있다”는 비유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실제로 일으켜지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소망은 영혼만의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 이사야 53장 · 마가복음 15-16장 · 로마서 3:21-26 · 고린도전서 15:1-8, 20-28 · 고린도후서 5:17-21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중심.

— 고린도전서 15:3-4

함께 나눌 질문

- 1 나는 복음을 “죄 용서”로만 이해했는가, 아니면 부활과 새 생명까지 포함해 이해했는가?
- 2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심각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3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상대화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핵심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이자 왕이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구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네 가지 핵심어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부음 받은 왕.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

십자가

죄와 단절을 담당하고 사랑의 왕권을 드러낸 사건.

부활

죽음을 깨뜨리고 새 창조의 시대를 여신 사건.

다음 질문

예수께서 정말 이런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에 대한 어떤 사실에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신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며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PART 2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기독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깊은 정체성.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 고린도후서 5:1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적 모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거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 갈라디아서 2:20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그분의 죽음에 참여함** — 옛 사람과 죄의 지배가 결정적인 심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 › **그분의 생명에 참여함** —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 › **새로운 정체성** — 나는 성취, 실패, 직업, 타인의 평가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 로마서 6:1-11 · 갈라디아서 2:20 · 고린도후서 5:17 · 골로새서 3:1-4 · 고린도전서 6:17

꼭 구분하기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함께 나눌 질문

- 1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나는 교회 다닌다”는 말과 어떻게 다른가?
- 2 나는 나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는가? 직업, 돈, 인정, 관계, 성취인가?
- 3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실패와 성공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자기 힘만으로 예수를 흉내 내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표현을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함께 읽을 본문 요한복음 14:16-20 · 로마서 8:1-17 · 갈라디아서 5:16-25 · 고린도후서 3:18 · 빌립보서 2:12-13

“예수를 닮는다”와 “성령으로 산다”는 반대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순서는 “내 힘으로 닮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그분을 닮아 간다”입니다.

핵심 흐름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



마음과 욕망의 변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실제 삶

그렇다면 노력은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신약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욕망을 거슬러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종의 가장 깊은 근원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나눌 질문

- 1 나는 신앙생활을 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경험하는가?
- 2 성령의 열매 가운데 현재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 3 이번 주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을 구체적인 선택 하나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며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혜택만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제자도는 내 계획 속에 예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 안에 내 삶을 놓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 마가복음 1:16-20 · 마가복음 8:34-35 · 요한복음 13:12-17 · 고린도전서 11:1 · 베드로전서 2:21

자기부인은 자기혐오가 아니다

자기부인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왕좌에서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무조건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의 통치 아래 다시 배치하는 일입니다.

제자의 질문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보다 먼저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가?”를 묻습니다.

— 함께 나눌 질문

- 1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는 원하지만 “주님”으로 따르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가?
- 2 돈, 연애·결혼, 직업, 성공, 시간 중 내가 예수께 내어드리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인가?
- 3 이번 주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할 구체적인 선택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십니다.

현대인은 신앙도 개인적인 취향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함”을 뜻합니다. 교회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 고린도전서 12:27

몸이라는 비유가 말하는 것

- › **소속** — 혼자 신앙을 완성할 수 없으며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 › **다양성** — 은사와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 › **상호돌봄** — 한 지체의 아픔과 기쁨을 다른 지체가 함께 나눕니다.
- › **성장** —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를 닮아 갑니다.

함께 읽을 본문 사도행전 2:42-47 · 고린도전서 12:12-27 · 에베소서 4:1-16 · 요한복음 13:34-35

함께 나눌 질문

- 1 나는 교회를 “예배를 보러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속한 몸”으로 생각하는가?
- 2 우리 공동체에는 약한 사람, 느린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 3 내가 이번 주 공동체의 한 사람에게 실제로 줄 수 있는 돌봄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목표는 “내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고 사람들이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보다 “선한 행실”, “본이 됨”, “빛”,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 마태복음 5:13-16 · 베드로전서 2:12 · 디모데전서 4:12 · 고린도후서 2:14-16 · 고린도후서 3:2-3

선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

선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성경적 순서는 결과를 통제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합니다.

성경적 순서

성령의 역사



변화된 성품



선한 행실



이웃이 그리스도를 봄



하나님께 영광

함께 나눌 질문

- 1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은가?
- 2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
- 3 우리 공동체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경험했으면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흉내 내는 사람”을 넘어

그리스도인은 예수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종이나 훈련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의 길을 배우고, 욕망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힘으로 예수 흉내 내기”와 “성령께서 다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사이의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 고린도후서 3:18

— 마지막 세 질문

- 1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 2 나는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가?
- 3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는가?

APPENDIX 1

6주 소그룹 가이드

매주 중심 본문을 깊이 읽고, 한 가지 질문을 삶으로 가져갑니다.

권장 시간 · 70~90분

본문 15분 · 해설 15분 · 대화 30분 · 적용 15분 · 기도 10분

1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27-30

이번 주 핵심 질문

예수를 좋은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읽으며

1.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찾아봅니다.
2. 베드로의 고백이 당시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이야기합니다.
3. 각자가 현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나눕니다.

진행자를 위한 포인트

- 정답을 빨리 말하기보다 참가자가 본문에서 직접 발견하도록 기다립니다.
- 교리적 표현이 어려울 때는 일상 경험과 연결하되, 본문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 서로 다른 고백이 나올 때 평가보다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 실천

이번 주 하루 한 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중요한 선택 하나를 주님께 맡겨 봅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나눈 내용에서 각자 한 문장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2주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한복음 1:1-18

이번 주 핵심 질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읽으며

1. 본문에서 “말씀”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표시합니다.
2. 성육신이 우리의 고통, 몸, 일상에 어떤 의미인지 나눕니다.
3.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이미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지점을 찾아봅니다.

진행자를 위한 포인트

- 정답을 빨리 말하기보다 참가자가 본문에서 직접 발견하도록 기다립니다.
- 교리적 표현이 어려울 때는 일상 경험과 연결하되, 본문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 서로 다른 고백이 나올 때 평가보다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 실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대하는 장면 하나를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나눈 내용에서 각자 한 문장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3주 왕이 십자가를 지다

마가복음 10:42-45 + 고린도전서 15:1-8

이번 주 핵심 질문

왜 예수의 왕권은 섬김과 십자가로 드러나는가?

본문을 읽으며

1. 세상의 권력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의 차이를 적어봅니다.
2.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중심으로 말하는 이유를 토론합니다.
3. 내가 힘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일지 나눕니다.

진행자를 위한 포인트

- 정답을 빨리 말하기보다 참가자가 본문에서 직접 발견하도록 기다립니다.
- 교리적 표현이 어려울 때는 일상 경험과 연결하되, 본문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 서로 다른 고백이 나올 때 평가보다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 실천

이번 주 한 사람을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행동을 실천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나눈 내용에서 각자 한 문장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4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2:20 + 로마서 6:1-11

이번 주 핵심 질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본문을 읽으며

1.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2. 정체성을 성취와 타인의 평가에서 찾을 때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3.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경계를 확인합니다.

진행자를 위한 포인트

- 정답을 빨리 말하기보다 참가자가 본문에서 직접 발견하도록 기다립니다.
-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은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성경적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 서로 다른 고백이 나올 때 평가보다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 실천

나를 가장 강하게 정의하는 세 가지를 적고, 그 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적어 봅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나눈 내용에서 각자 한 문장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5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8:1-17 + 갈라디아서 5:16-25

이번 주 핵심 질문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서 성령과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함께 일하는가?

본문을 읽으며

1.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찾아봅니다.
2.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요즘 내게 가장 필요한 열매를 고릅니다.
3.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앙과 “성령을 따라 걷는” 신앙의 차이를 나눕니다.

진행자를 위한 포인트

- 정답을 빨리 말하기보다 참가자가 본문에서 직접 발견하도록 기다립니다.
- 성령을 말할 때 감정적 체험만으로 축소하지 말고, 성령의 내주·거룩하게 하심·열매·순종을 함께 다룹니다.
- 서로 다른 고백이 나올 때 평가보다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 실천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른 순간 / 성령을 따른 순간”을 각각 한 가지 기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나눈 내용에서 각자 한 문장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6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속에

고린도전서 12:12-27 + 마태복음 5:13-16

이번 주 핵심 질문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보게 되는가?

본문을 읽으며

1. 몸의 비유가 공동체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찾아봅니다.
2. 선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3. 우리 공동체가 다음 두 달 동안 함께 실천할 선한 일을 한 가지 정합니다.

진행자를 위한 포인트

- 정답을 빨리 말하기보다 참가자가 본문에서 직접 발견하도록 기다립니다.
- 교리적 표현이 어려울 때는 일상 경험과 연결하되, 본문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 서로 다른 고백이 나올 때 평가보다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 실천

개인 적용을 넘어 소그룹 전체가 함께 실천할 한 가지 섬김을 계획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나눈 내용에서 각자 한 문장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핵심 성경본문

교재를 읽는 것보다 성경 본문을 직접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마가복음 8:27-30

요한복음 1:1-18

빌립보서 2:5-11

골로새서 1:15-20

하나님 나라와 왕권

마가복음 1:14-15

마가복음 10:42-45

요한복음 18:33-37

십자가와 부활

이사야 53장

마가복음 15-16장

로마서 3:21-26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5:17-21

그리스도와의 연합

로마서 6:1-11

갈라디아서 2:20

고린도후서 5:17

골로새서 3:1-4

성령의 내주와 변화

요한복음 14:16-20

로마서 8:1-17

갈라디아서 5:16-25

고린도후서 3:18

빌립보서 2:12-13

제자도와 공동체

마가복음 8:34-35

요한복음 13:34-35

고린도전서 12:12-27

에베소서 4:1-16

세상 속의 삶

마태복음 5:13-16 · 베드로전서 2:12 · 디모데전서 4:12 · 고린도후서 2:14-16

읽는 방법

한 구절만 떼어내 결론을 만들기보다 앞뒤 문맥을 함께 읽으세요. 반복되는 단어, 명령, 약속, 인물의 반응을 표시하고 “이 본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 주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을 책

성경을 대신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을 더 깊이 읽도록 돕는 책들

존 스토틀 · 《기독교의 기본 진리》

추천 연결 · PART 1 전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균형 있게 정리합니다. 처음 기독교의 핵심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함께 읽기 좋습니다.

팀 켈러 · 《왕의 십자가》

추천 연결 · 1-4장

마가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C. S. 루이스 · 《순전한 기독교》

추천 연결 · 1-4장 보충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전제와 예수에 대한 고백을 이성적으로 탐구합니다. 신앙에 질문이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기 좋습니다.

존 스토틀 · 《제자도》

추천 연결 · 7-9장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제자도의 실재를 압축적으로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토론하기에 좋습니다.

헨리 나우웬 · 《예수의 길》

추천 연결 · 6-9장

성공, 인정, 자기증명, 영향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예수의 낮아짐과 사랑의 길을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 《나를 따르라》

추천 연결 · 7장 심화

은혜와 순종, 제자도의 대가를 깊이 묻는 고전입니다. 내용이 다소 무거워 소그룹 리더 또는 심화 독서로 추천합니다.

* 번역본의 부제나 출판사 표기는 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시 저자명과 원제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개인 묵상 노트

읽고 끝내지 않고, 나의 언어로 고백하기

1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2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3 나는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는가?

4 성령의 열매 가운데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5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6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경험했으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마지막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일상 속 사랑, 용서, 섬김, 정직과 인내를 통해 드러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 갈라디아서 2:20

FINIS